

코닥을 追跡하려는 富士

—高感度 필름의 特許戰爭—

코닥社가 獨占物化하고 있는 칼라필름에 富士寫眞필름이 猛追撃을 加하고 있어 그 結果가 두고 볼만하다.

富士필름은 그동안 超高感度의 칼라필름을 開發하여 西獨 케툰에서 열린 포드카나에 展示까지 했다. 이 필름은 감도가 ASA 400이며 스트리보의 使用에 힘드는 室內나 夜間風景 등을 칼라로 摄影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칼라필름의 生產技術은 그동안 코닥의 特許와 노우·하우로支配되어 왔으나 富士에서도 高感高カルラ필름의 製造技術에 대한 特許網을 世界的으로 펼쳐 놓으려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코닥과의 關係가 불만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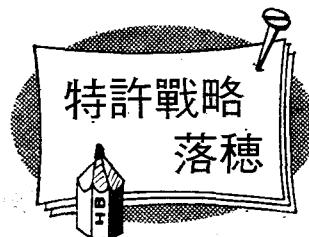
코닥社는 조지 이스트먼이 創設한 世界最大의 필름메커이며 美 메른·퍼스트네셔날 시티銀行系의 財閥企業이다. 필름으로 세계의 50%, 칼라필름으로는 90%의 市場 占有率을 誇示하고 있으며 포둔誌의 세계랭킹은 賣出額이 25位 정도, 利益은 10位圈 以內의 多國籍企業이다.

세계의 필름메커는 코닥을 비롯해서 西獨의 아그파, 日本의 富士 등의 順으로 되어 있으며 生產者가 적은 獨占形態로 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다.企業이 寡占狀態로 되어 있는 理由의 重要한 이유는 필름의 제조방법이 많은 노우·하우와 技術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많은 資本을 들여 販賣網을 設置해야 한다는 占이다.

필름의 製造工程은 感光乳劑와 그 乳劑를 塗布하는 필름베이스의 두 가지로 나뉜다. 유제는 硝酸銀이나 제라틴, 添加劑를 原料로 하여 溶解混

合하고 필름베이스는 醋酸纖維素에 용제를 加하여 혼합한 후 움지기는 金屬板 위에 흘려 만든다. 따라서 필름베이스에 유제를 바르는 기술이 어려우며 칼라에서는 10回 정도를 밀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닥의 기술을 넘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世界最大의 化學메이커인 뉴풀도 한때 칼라필름에着手하여 거의 기술을 개발하고 試製品을 코닥의 것과 比較 分析한바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 그만 필름제작을 抛棄했다는逸話도 있다.



여기에 富士가 獨自의 으로 高品質乳劑와 塗布技術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그 유제는 集中核型粒子(CL G)라고 하는 潛像의 形成率이 높은 高粒子를 活用하고 필름베이스는 畫

像 制禦層을 14層으로 積層하여 高感度이며 安定된 필름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칼라필름은 감도가 높을 수록 활영이 不利했으나 이 고감도 필름은 종래의 것보다 4倍나 고감도임에도 샤야프해진다는 宣傳이다. 따라서 집안에서의 칼라활영이나 劇場, 野球의 나이터 등 칼라활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關係者들은 아직도 코닥의 追跡은 어려우리라는 見解이다.

코닥과 富士의 資本力은 7對1, 이의율은 19분의 1 정도로 評價되고 있음을 미루어 보아도 企業能力에 짐작이 간다. 그뿐 아니라 富士는 물론이고 아그파도 도저히 相對가 되지 않고 있는데 코닥에서도 이미 고감도의 필름기술을 개발하여 머지않아 발표할 段階에 있으므로 고감도 칼라필름의 競爭도 時間의 인문제인 듯하다는 추측들이다.

富士가 개발한 고감도 칼라필름은 이제까지의 것보다 20% 정도 감도가 높아 촛불에서도 칼라활영이 되며 스포츠의 被寫體 같은 빨리 움직이는 것도 캐치할 수 있다고 자랑이지만 코닥에서도 둘째를 하게 되어 필름業界야 말로 就業을 위한 特許戰爭이 甚刻하게 벌려졌다는 소식이다. (C記)

아이디어 創造의 名手

—松下電器는 實用新案으로 通稱—

日本의 松下電器(株)라고 하면 松下幸之助가 이끄는 大家電메커이지만 그가 오늘을 構築한 것은 電氣 소켓트를 비롯한 자질구체한 家電製品生產 부터이다.

내셔날이 그의 商標이지만 특히 實用新案公報에는 언제나 그의 考案品이 실질정도로 아이디어 創造에 細心하다. 그가 雙소켓트를 考案하여 생산할 때만해도 工場이라야 2坪

남짓했으며 資本金도 百圓이었다. 그러나 이 電氣雙소켓트의 성공이契機가 되어 파카萬年筆의 뚜껑의 原理를 이용한 直入式 소켓트로 改良하여 또 성공했다.

이어 自動車 램프의 고안으로 히트하였고 다음은 大小電球를 개발하는 등 새 아이디어에 의한 新製品을 계속 發明, 考案하여 오늘의 내셔날 松下電器로 大成한 것이다. (C記)